

## ‘사찰 부동산 관리법’ 만든다

### 조계종 2억여평 토지 종단 관리...정재혜손 최소화

조계종이 '사찰부동산 관리법'을 만든다. 이로써 입법미비로 인해 훼손, 매각, 망실됐던 토지 및 일체의 조계종 소유 사찰부동산 관리가 일원화된다.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사찰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총무원장의 승인없이 사찰 단독으로 사찰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종단 소속 사찰의 소유토지 가운데 보존토지(사찰이 건립된 토지 및 수행 전법 포교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지

정된 경우 임대, 토지사용승낙, 개발, 양도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사찰부동산 관리법은 부동산의 보존 관리와 처분, 망실재산복원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종단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산회계법' 제7조에서 '종단이나 사찰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대여,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나 법적효력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

이다. 주지스님이나 총무원 임의로 대여 또는 매각해 삼보장제가 훼손 또는 유실된 사례도 있었다. 경북 포항 비사, 경기도 포천 비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찰부동산 관리법이 제정되면 개발로 인한 공공편익 및 수용, 과다한 세금 징수를 막을 수 있다"며 "약 2억여평의 종단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찰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면 조계종산하 모든 사찰(암)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부동산(건축물 토지 일부분)은 '대

한불교조계종 00사'로 등기해야 된다. 사찰부동산관리법은 각 사찰의 주지는 부동산관련 서류를 작성해 교구본사와 총무원에 보고토록 체계화하고 있다. 또 해당사찰주지가 사찰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상가등)을 임대할 경우 4년이하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계약 또는 경신계약시 임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한편 총무원은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제125회 임시총회에서 통과되지 않겠다고 이날내로 사찰부동산관리법을 마련, 입법에 고할 방침이다. <김종국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금주(4월 2일자 121호)부터 20면으로 증면됩니다. 94년 10월 15일 독자여러분의 박수와 기대속에 출발한 '현대불교'는 이제 정상의 정법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계의 신행 모습을 눈여겨보고 '독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은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표방한 창간정신에 맞게 지면을 다시 꾸렸습니다. 지면 부족으로 미흡했던 직장 직능법회, 신행안내, 지방·종단소식 등의 정보를 확장 하면서 지면을 크게 확장하는 새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확장하는 자재로 독자여러분의 도반과 선지식 그리고 가정법당이 될 '현대불교'에 아낌없는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 ‘지방세계’ 열면 법계가 보입니다

### 지방세계

기획취재·화제의 인물 등 독자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테마기획으로 시원한 컬러 지면입니다. 법구경과, 큰스님 수행현황, 자리를 옮겨온 대령스님의 지상선원과 우주를 넘나드는 소설 수미산으로 이어지는 '지방세계'를 열면 법계가 보일 것입니다.

### 불자 세상보기

인권, 환경, 도덕, 윤리 등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사건을 정리하면서 경전의 말씀·진문가 도움말을 통해 불자로서 지녀야 할 사회인식을 넓히는 새 지면입니다. 지계와 파계로 경종을 울리고 생활정보로 세상풍토 소개합니다.

### 새연재

▲한형조의 무문관 탐방  
한형조박사(정신문화연구원·본지 논설위원)가 현대어로 쓴 '무문관' 탐방으로 어렵다는 공안공부를 해 보시요. <신문(영문)속의 관련 예화와 해당스님의 사상과 종풍도 다루어집니다. 더불어 '법수로 배우는 불교'와 '과학과 불교'가 자리를 함께하여 선·교(敎)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나의 경전  
두 면으로 확대 강화된 출판페이지의 새 기획 '나의 경전'은 스님과 재가명사들의 경전 인연을 통해 더욱 감동적으로 경전의 세계에 다가서게 합니다.

▲건강과 식품  
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특히 건강에 좋은 식품은 무엇일까요.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남박사(화학)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가정, 여성, 환경, 패션정보가 어우러집니다.

기획다채 지면 대혁신  
종단·지방소식면 확대



서 불교의 수행상을 형상화 했다.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미지 통일을 위해 캐릭터는 물론 현수막디자인 등의 내용이 수록된 책자를 전국 불속위원회에 무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02-732-9342)

## 조계종 초파일 봉축 캐릭터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지난 3월 27일 불기 2541년 봉축 캐릭터를 발표했다. 금년 봉축 캐릭터는 지난해 제작한 아기 부처님을 보완하고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등자승 캐릭터를 개발했다. 등자승 캐릭터 이름은 천진동자이며 태없이 맑고 깨끗한 계구장이 같은 모습속에

## 9일 생명공동체 방생법회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오는 9일 팔당호에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를 개최한다. '한민족 한생명,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방생법회는 1만불자 통일발원 팔당호 수중청결대 청소 등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조계종은 이번 방생법회를 통일·환경 운동을 함께 묶는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은 △수입어종 사용금지 △수질에 맞는 어종 선택 △조류방생 권장 등을 골자로 하는 방생지침을 발표했다.

북동포동기 천만원 기탁 박상은씨 1921 표충비 신비 아십니까 92년 불교문화 테마여행-내소사 202년

## ‘합의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특별연입니다.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당장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고 본능이 터져 잔심을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은 내가 정성(精誠)에 지은 죄업의 소멸이다' 생각하고 참회하면 그것이 공덕이 된다. 어떤 이기적인 공리를 노려서

## 한생각 쉬면 죄업소멸

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심을 없애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벌써 6년전 일이다. 내가 어떤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최고 득표의 영광을 가졌다. 그러나 후인과정에서 차점자가 선임되었다.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참회하고 울분이 터져 견딜 수 없었다. 그럴수록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염불을 하고 집으로 갔다. 별의별 생각을 다하다가 생각을 한번 돌려 보니 이것은 전생죄업을 소멸시켜주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으로 죄 제업은 참회되었고 참회되었으므로 성취되었습니다'하고 마음을 쉬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2년 뒤에 나는 마침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약 그때 내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였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 변함없으며 한 생각이 일어날때 죄업소멸로 참회하면 그 생각이 곧 큰 대무변 성취인 것을 믿고있다. (동국대학교 총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apia.com

## '97 문화 유산의 해 기념!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축소모형) 보급

'97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동미륵 보살반가사유상을 소장용으로 축소 보급합니다.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약 7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국보 제78호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함께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머리에는 삼면이 둥근 산모양을 이루는 관을 쓰고 있어서 '삼산관반가사유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반가사유상은 흔히 미륵보살 혹은 태자사유상이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 출가전 '生老病死'의 의미를 깊이 사유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후세에 출현할 미륵보살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고민하여 깊은 사유에 빠져있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전면의 단아한 모습과 함께 아래로 길게 늘어난 천의의 주름은 옛 선현들의 뛰어난 조각기술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서양 근대조각의 대표적인 작품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비견되는 동양조각의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이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인 것입니다.



제품 사양  
품명: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83호 축소형)  
재질: 청동 99.9%  
가격:  
크기 | 형태 | 골동품형 A, 골동품형 A, 코팅  
9치 (26.5cm) | 230,000원  
1자3치 (40.5cm) | 350,000원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指定文化財 彫刻技能匠 第680호 佛敎彫刻院 이진형 院長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 제작한 작품으로 고정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이진형  
LEE JIN HYUNG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93-'94 (사)문화재 기능인 협회 회원전 2회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0호 현재-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제작: 불교조각원  
보급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2-1522, 737-8881  
팩스: (02)737-0697